

봉축 영상 메시지

생명이 움트고 희망으로 가득한 오늘은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주인이며, 희망이라는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혜와 자비의 새싹을 틔워 모든 생명을 감싸는 대자비의 연꽃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명이 가져다 준 육신의 편안함과 물질의 과도한 소비를 풍요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허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풍요, 공동체의 풍요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의 길벗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통합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밝은 공동체를 염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을 맞아 세상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도반으로 살아갑시다.